

미래형 대학과 갈등

이돈희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체적으로 말해서 1990년대의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교육개혁의 분위기는 대학들에 대하여 경쟁과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를 휩쓸고 있는 세계화의 에토스가 부추겨 놓은 국가 간 경쟁의 장에 임하기 위하여, 나라마다 대학을 최전방으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 확산, 가공을 가장 체계적으로 감당하는 곳은 대학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대학-어쩌면 오늘의 대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에서 예견되는 것은 '개방적 학습장'의 특징이다.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정예집단에만 한정된 고고한 상아탑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자체로서 일종의 대중적 산업에 해당한다. 안으로는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으로 열려있고, 밖으로는 지식, 정보 그리고 가치를 향시적으로 거래하며, 지역이나 국경을 넘어 열려있는 상태에서 연구와 학습이 진행된다. 우리의 대학들은 싫건 좋건 간에 변신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변신이 아무런 갈등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만 들어 보자.

첫째는 엘리트즘에 대한 집착이다. 엘리트즘은 수월성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제도에 붙여진 평가적 언어이다. 엘리트즘이 더 이상 대학의 가치를 표상하는 언어가 되지 못한다면, 대학은 자체의 고고한 위상에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미래적 전망은 적어도 당분간 전통적 엘리트즘과 필연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능력의 개념을 주지주의적 관점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원적 구조로 개방하면, 대학의 역할도 새로운 학습과 연구의 장을 열어가갈 수는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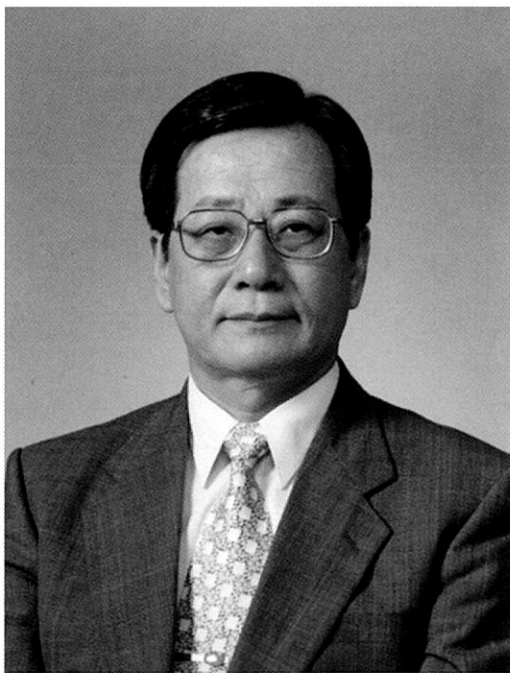
둘째는 계속교육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다. 직업세계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 즉 새로운 직종의 출현과 옛 직종의 도태, 직업마다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빈번한 직업간 이동 등이 활발하면, 불가피하게 직업세계는 전통적인 완고한 대학에 대해서도 개방의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은 적령기에 일회적으로 그 과정을 이수하고 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학습의 필요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체제를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아카데미즘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불안을 낳을 수가 있다.

셋째는 개방적 체제의 통제력에 대한 불안이다. 교육 대상을 특정 집단에 한정하지 않으며, 거의 항시적으로 구성원의 이동과 변화를 허용하고, 운영의 형태도 유연성을 유지하며, 원근에 있는 타 기관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는 현상이 현실로서 존재한다. 그러면 종래의 안정되고 익숙한 제도나 관행이 지닌 편리성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개방체제는 바로 혼란과 역기능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능률적이지 못하다고 여길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넷째는 세계적 기준의 수용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선, 세계적 기준을 수용하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연구의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간의 통합, 접변, 분화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세분화된 새로운 분야들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전통적 학문의 분류는 별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종래에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던 각종의 지표나 척도 등 비교적 구체적인 수단들만이 아니라, 관습과 전통의 풍토 속에서 자라온 자체의 문화를 폐기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 결국 합리성의 기준 자체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래형 대학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지 간에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불가역적, 불가항력적 현상이기도 하다. 적어도 위의 네 가지 갈등은 넘어야 할 장벽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고 민주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학들은 미래형 대학을 제대로 창조하기가 어렵다. 전통적 기준에서 보면 그 해결이 대학의 질적 저하를 의미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안목과 체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및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주 웨인주립대학 철학과에서 MA, 교육철학과에서 Ph.D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